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2017 업무추진계획

문화 · 관광 하나되는 전북 역량 집중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통해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실감콘텐츠 개발 관광 활성화
무형문화재 보유자 · 단체
각종 국내 행사 참가 지원
전주 기독교 역사 기념관 건립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와 관광이 하나 되는 한국체결 1번지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전략을 도출하였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융성을 도민의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성공적 안착으로 문화관광 융성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축으로 한 전북만의 색깔 있는 실감콘텐츠(VR/AR) 개발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관광총괄과는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토탈관광 정책 추진 및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운영을 본격화 한다. 문화유산과는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활성화 하며 종교문화재를 지원한다.
각 소속 과별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과는 공공문화시설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과 전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작품·공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도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또 문화소의 계층에 문화·여행·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전북도 예술회관의 모습.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제공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문화예술 영재를 조기 발굴, 과학·인문학·사회학 등 타과의 융·복합형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문화관광자원과 VR/AR 등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체험형 1시간 1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산업을 창출한다.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위한 스마트 운영 플랫폼 구축과 VR

기반의 태권 로봇 시뮬레이터 및 콘텐츠 개발로 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꾀하며 차세대 태권도 도시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관광총괄과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FIFA U-20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한 전북 방문의 해 추진 사업을 펼쳐 관광객 3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인다.
문화유산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페스티벌·바라회·전시회 등

국내 행사 참가를 지원하며,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보수정비 및 복원·발굴 사업을 이어간다. 사업은 전주 경기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66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또 가야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야문화유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전주지역의 개화기 기독교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해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하정열 '동일아리랑', 황희문화예술상 수상

북한학 전문가의 현실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한반도 정세 등을 가상 소설로 묶어낸 '동일아리랑'이 '황희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하정열 위원장이 집행해 지난해 발간했던 장편소설 '동일아리랑'이 지난 4일 서울 국제문화교류 협회에서 열린 '제29회 황희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희문화예술상'은 조선시대 명재상이면서 청백리의 귀감으로 칭송받는 황희 정승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잇고자 제정된 상으로 매년 문화계 각 부문에 걸쳐 황희 정승의 학문과 인품에 걸맞은 작품 및 화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상을 받은 소설 '동일아리랑'은 하정열 위원장이 북한학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현실적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통일이 되는 과정과 그 후 한반도가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한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40여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연인원 100만명이 정독하며 통일시대의 꿈과 상상을 그리게 한 작품이기도 하다.
저자 하정열 위원장은 4권의 시집을 비롯해 북한학과 군사학 등에 여러 저서를 펴낸 바 있다.
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종합대상과 일본 신일본 국제미술 특별대상 등을 회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군 장성출신 이면서도 문화예술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특별한 경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정음=김태환 기자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익산예술의전당서

1498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황제의 칙령으로 조직된 빈 소년 합창단은 비엔나 궁정성당에서 미사곡을 부르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빈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빈 궁정악단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유서 깊은 합창단이다.
빈 소년 합창단의 유구한 역사 속에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발자취도 담겨 있다.
슈베르트와 하이든은 소년 시절 빈 소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모차르트는 매일 아침 미사 시간에 합창단을 지휘했다. 베토벤은 합창단을 위해 반주를 하였고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은 자신의 곡을 합창단에 헌정하기도 했다.
천상의 화음과 절정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합창단이 오는 15일 오후 5시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신년음악회를 연다.
'스마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미소를 짓게 만들 따뜻한 레퍼토리의 곡들로 채워진다. 퍼셀·비발디·모차르트 등 마음을 새롭게 해 줄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성가 곡을 비롯해 저절로 따라 부르고픈 영화음악 시리즈, 신년을 위한 왈츠와 폴카, 불가리아·아프리카·멕시코 등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입장료는 VIP석 7만7천원, R석 5만5천원, S석 3만3천원.
**문의 063-859-3254. /정해은 기자

전북 무형문화재 김소라 장구 공연 '비가 올 징조'

전통 타악, 리듬감있고 모던하게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2호 정음농악 이수자인 김소라는 연희와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여성연희단 노리꽃, 모던월드뮤지그룹 듀오벳, 창작그룹 누모리에서 연희자·타악연주가·즉흥음악가로 활동 중인 김소라는 한국의 타악을 리드미컬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연주하며 국내외 무대에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는 13일엔 2016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 MAP에 선정된 작품 '장구 프로젝트III-비가 올 징조:A sign of Rain'으로 관객들에게 인사한다.
공연은 미디어아트와 사진 같은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한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비 오기 전후의 세 가지 현상 '비가 내리기 전에는' '비가 내릴 때에는' '비가 내리고 나서는'으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소라는 "장구는 예로부터 비를 상징하는 악기로 알려져 있기에 공연 제목을 '비가 올 징조'로 정했다"며 "공연 소재인 비를 통하여 있고 있었던 자연의 흐름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일상 속에서 듣고 지나칠 수 있는 진정한 소리와 음색을 감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공연은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에서 13일 오후 8시와 14일 오후 3시·7시에 열린다.
**문의 프로젝트벳 02-6449-9225.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다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9일>

<p>▷쥐띠 48년생: 문서운이 들어오니 계약을 해도 좋은 운이다. 60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모든 일은 약간 모자란 듯 해야 해가 없는 운이다. 72년생: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할 일이 많다. 84년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니 일단 보고 달려라.</p>	<p>▷소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운이 따른다. 61년생: 이상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되는 운이다. 73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나 큰것을 할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85년생: 다른 사람과의 구설수와 시비가 예상되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큰 움직임은 불리하니 자중하라. 62년생: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내심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라. 86년생: 경쟁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길다.</p>	<p>▷토끼띠 51년생: 평소 익숙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실수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3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다. 75년생: 타인과의 시비가 따르니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87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p>
<p>▷용띠 52년생: 잠시 불만만 할 일이 발생하니 통유지 말라. 64년생: 도와주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니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겠다. 76년생: 함께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써라. 88년생: 외부적인 일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다.</p>	<p>▷뱀띠 53년생: 때로는 과묵하면서 조용한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77년생: 이성과 불화가 생기는 운이다. 기혼자는 부부불화에 주의하라. 89년생: 편법은 통하지 않으니 정도를 지키며 점진적으로 나아가라.</p>	<p>▷말띠 54년생: 사람과 만나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때다. 66년생: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줘라. 좋은 일이 생긴다. 78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면 잘 해결되는 운이다. 90년생: 여자는 남자로 인해서 마음 상할만한 일이 생기니 말을 줄여라.</p>	<p>▷양띠 55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대립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6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운이다. 79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는 운이니 매사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91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난관이 생기는 운.</p>
<p>▷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른다. 68년생: 바쁘거나 하고 바쁜만큼의 이득은 얻기 어려우니 욕심을 버려라. 80년생: 처음에는 어긋나나 후반에는 같은 마음이 된다. 92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이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모욕이나 술자리에서 조심해야 하는 운. 실언으로 망신당할 일이 생길다. 69년생: 뒷사람의 덕이 출만하니 태만이 빛을 발하는 격이다. 81년생: 여성은 남성의 조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작은 성취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운.</p>	<p>▷개띠 46년생: 크게 움직이면 금전 손실만 많이 따른다. 58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을 보게 되고, 먼저 얻으면 후에 잃게 된다. 70년생: 과도한 의욕을 앞세워 독단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82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만한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59년생: 문서에 결성이 따른다. 71년생: 마음 상할일이 생길다. 83년생: 작은것에 욕심 부리다 큰것을 잃을 수 있다.</p>